

Art



아트인컬처
September 2021

Special Feature /
3040 한국 조각가 57인
지금, 조각은 변하고 있다

Abroad /
도쿄비엔날레
예술, 팬데믹을 돌파하라!

Image Link /
양혜규, 한지 콜라주 '황홀망'

Artist /
정재철 1959-2020
노마디즘, 소생의 예술

Sculpture

① 조각적 조각, 전통과 실험_강재원 권현빈 김인배 김정현 김주리 김주환 서성훈 여다함 유진식 윤정의
윤지영 이동훈 이병호 이상윤 이충현 조재영 최고은 최태훈 함진 흥기하 홍정표 황수연

② 혼성 조각, 장르의 경계를 넘어_곽이브 권오상 권용주 금민정 김동희 김상진 심승욱 연기백 이소정
이창원 전소정 정소영 조이습 조혜진 한광우

③ 내러티브 조각, 형식에서 내용으로_곽인탄 김상돈 김영봉 김채린 돈선필 문이삭 믹스앤픽스 민성홍
박보마 서해영 오은 우한나 윤가림 이은우 이의성 이지은 진기종 차슬아 최하늘 허연화

④ 지금, 조각은 변하고 있다

추천위원_김종길 남웅 박춘호 안소연 임근준 정현 최태만, 모더레이터_김복기

오른쪽 페이지 · 이병호 〈Anthropometry〉 폴리우레탄, 나무, 플라스틱, 와이어 가변크기(부분) 2019



3040 한국 조각가 57인

지금, 조각은 변하고 있다. 20세기 이래 현대조각은 '해방'과 '자유'를 구가했다. 존재 개념, 소재 선택, 표현 기법 등이 무한히 확장하면서 '기념비성'과 '3차원성'이라는 조각 고유의 특권이 흔들렸다. 다른 장르와의 '이종 교배'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제는 회화, 사진,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과 경계를 맞물고 있다. 조각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애매해진 오늘날, 그러나 조각적 인식과 태도, 재료와 기법을 고민하는 '조각가'도 여전히 건재하다. Art는 질문을 던진다. 한국 조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시대의 '조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변화했으며, 그 변화의 요체는 무엇인가? 여기, 한국 동시대조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조각가'를 호명한다. 전문가 7인이 추천위원으로 가담해 3040세대 중심의 조각가 57인을 선정했다. 이들의 작품을 3개 섹션의 화보로 꾸며, 조각 양식의 횡단면을 분석했다. 모더레이터 김복기가 7인의 추천사와 추가 인터뷰를 정리해 '조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비평의 장을 열었다.

조각적 조각, 전통과 실험

조각이란 '3차원 공간에 구체적인 물질로 구현된 볼륨의 구성체'로 정의된다. 조각의 기원은 주술, 신화, 종교적 '우상 숭배'에 맞붙어 그 탄생부터 사람들의 경외감을 자아내는 '기념비성'을 배태했다. 그렇다면 현대조각의 시원은? 로댕은 조각의 독립성을 최초로 각성한 이로 지목된다. 해부학을 따르지 않는 인체 조각으로 '물체의 감상'을 이끌어냈다. 20세기 들어 예술의 순수성을 주창한 모더니스트는 본질적인 형태로 환원된 추상조각의 영역을 개척했고, 그 극단에 선 미니멀리스트는 산업 재료, 소비 사회, 현상학적 경험을 강조하며 조각의 '해방'을 일궈냈다. 무엇보다 조각은 소재와 밀접한 예술이다. 신소재의 등장은 현대조각의 표현 방식에 일대 변혁을 불러왔다. 스티로폼, 우레탄 폼, 에폭시, 라텍스 등 가볍고 값싼 재료에서 기념비적 형태를 추출하는 조각이 크게 늘었다. 모호한 조각의 경계에서, 한국의 젊은 조각가는 전통조각의 맥락을 잇되 '형태', '재료', '물성' 실험으로 동시대성을 파고든다. 김인배, 이병호는 고전적인 인체 조각상을 뭉개고 파편화해 전통조각을 변용한다. 윤지영은 고전 양식의 조각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 남성 중심의 역사에 일격을 가한다. 권현빈, 김주리, 김주환, 홍기하는 돌, 석고, 철, 흙 등 전통 재료의 '덩어리' 개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이를 동시대적 형상으로 연마한다. 유진식과 이동훈은 나무와 도자에 채색을 가미해 회화적 표현 언어를 접목한다. 최고은, 최태훈은 기성 용품에서 조각적 형태를 추출하고, 서성훈, 윤정의, 함진은 재료와 표현 기법의 일체화에 골몰해 새로운 양식을 제시한다. 이충현과 강재원은 물리 법칙에서 자유로운 3D 환경에서 '미래의 조각'을 내다본다. 조재영, 홍정표는 큐브를 반복 구축해 기하학적 형태의 조각을 제작한다. 김정현, 이상운은 나무 조각으로 예술의 쓰임새, 조각의 생태성을 고민한다. 황수연과 여다함은 종이, 실 등 가벼운 재료로 탈구축의 조각을 제작한다.





김인배 무거운 빛은 가볍다_왕관

이전 페이지 왼쪽 · 황동 40×30×57cm 2014 / 김인배는 인간 신체를 변형한 조각을 제작해왔다. 눈, 코, 입이 없는 인물상이나 동그런 양감만으로 표현한 두상 덩어리는 조각을 권위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에 질문을 던진다. 또한 조각의 기본 요소인 점, 선, 면, 양감, 질감 등의 일부를 극대화해 조각에 대한 시지각적 경험을 강화했다. 조각의 고전적인 범주를 재인식하거나 확장해 새로운 형태를 제시한다.

유진식 미스터 부르주아

오른쪽 · 조형토 25.4×20.3×53.3cm 2020 / 유진식은 도자를 매체로 인체 조각을 제작한다. 영상 속의 무용수를 크로키하고, 이 드로잉을 무작위로 뒤섞고 이어 붙여 새로운 인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를 토대로 얇은 흙판을 자르고 구부려 도자로 구워낸다. 그의 도자 인체는 몸짓의 조형에 치중할 뿐, 남성이나 여성 혹은 인체 너머에 있는 관습적인 사선을 차단한다.

이병호 단체전 <CAST> 설치 전경 d/p 2021

이병호는 고전주의적 인체 조각을 동시대의 방법론으로 변용한다. 라이브 캐스팅으로 틀을 뜨고, 이 캐스팅을 반복해 신체 덩어리를 '모듈'화한다. 이 모듈의 파편을 조합해 하나의 조각으로 완성한다. 최근에는 로맹의 <칼레의 시민들>의 형상 일부를 참조해 이전에 제작해냈던 작품을 다시 변형하거나, 새로운 지지대를 붙이고 동세를 바꿔 전시했다. 부서지고 꺾여 접합된 이 조각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혼성 조각, 장르의 경계를 넘어

현대조각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입체 조형'의 시대가 개막했다. 조각은 예술작품의 존립 근거를 '선택'으로 확장한 레디메이드, 일상용품을 '집적'하는 아상블라주의 영향으로 산업 물질을 재료로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던 좌대마저 사라지면서 조각이 놓인 공간이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로 회화와 조각 대신 평면과 입체라는 장르 개념이 도입되면서 설치미술이 급속하게 확산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오브제, 키네틱아트, 퍼포먼스, 대지미술, 비디오아트 등이 조각과 '3차원성'을 공유하면서 장르의 경계가 완전히 해체된 듯 보였다. 조각에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조각가들은 '조각적인 조형성'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타장르와의 이중 교배를 시도했다. 확장된 표현의 물살을 타고 적극적으로 '혼성' 양식을 배출했다. 이로써 동시대조각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과연 어디까지가 조각인가? 이창원은 구조물을 회화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주는 '회화조각', 권오상은 3차원 입체를 2차원의 사진으로 구현하는 '사진조각', 금민정은 목조각에 모니터를 조형 요소로 넣는 '영상조각'을 제작한다. 조각의 '입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는 시도다. 전소정, 김상진은 영상, 설치, 조각, 건축 등을 넘나들며 사회적인 주제, 인식론적 문제를 다룬다. 심승욱, 권용주는 값싼 폐품으로 거대한 설치조각을 구축해 동시대의 풍경을 스펙터클하게 펼친다. 연기백은 버려진 벽지로 '건축적 조각'을 구현하고, 한광우는 공간의 '스케일'을 소재 삼아 전시장을 작품으로 탈바꿈한다. 정소영과 조혜진은 연구자의 태도로 대상을 분석해 이를 조각작업으로 치환한다. 기이한 식물을 조형하는 조이슈, 인테리어 소품의 제작 방식을 차용하는 이소정은 동시대의 세련된 '쇼룸' 감각을 시각화한다. 콕이브와 김동희는 건물에 대응하는 입체이자 평면, 좌대이자 조각을 만들어 관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조각 경험을 제안한다.







이창원 그늘 안의 부처

이전 페이지 왼쪽 ·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80×60cm 2009 / 이창원의 대표작은 블라인드 구조물에 커피 가루, 찻잎 등을 얹고 조명을 비춰 그림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준 '회화 조각'이다. 〈그늘 안의 부처〉는 거울에 글라스 물감으로 프린트한 작가의 음영 자화상을 다양한 곳에 반사해 그림자를 촬영한 작품. 무형의 그림자를 조각과 사진으로 '물성화'하려는 시도다.

권오상 Gilded Hair

오른쪽 · C-프린트, 혼합재료 48×45×205cm 2013 / '사진 조각'의 선구자 권오상. 아이소핑크로 형체를 만들고, 그 위에 수백 개의 사진을 콜라주해 인물상을 만든다. 3차원 형상을 2차원 재료로 구현해 조각의 '입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권오상은 초상 조각의 고전 형식을 참조하되, 조각의 내부와 외부의 논리적 관계를 지탱해주던 매체의 순수성에서 벗어나 조각의 '지체'와 '표면'을 분리했다.

심승욱 구축 혹은 해체-부재와 입재 사이

초산 비닐 수지, 목재, 판지에 아크릴릭 230×210×245cm 2013 / 심승욱은 개인 혹은 집단의 욕망에 기인하는 '불안'을 탐구한다. 그는 카드보드지, 종이, 초산 비닐 등의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폐품을 겹쳐 칠해 드라마틱한 규모의 작업을 제작한다. 가벼운 소재로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한 이 작업은 일종의 조각적 눈속임. 타 녹아내린 듯한 형태, 그 잔해가 서로 뒤엉킨 검은 물체는 불안한 삶을 목시한다.

내러티브 조각, 형식에서 내용으로

재료와 형식보다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경향은 현대미술의 일반적인 추세다. 현대조각도 '내용주의' 흐름을 공유한다. 조각은 사회 현상과 개인 취미를 담은 '그릇'으로 변모해왔다. 이는 미술작품을 형태로만 환원하는 모더니즘의 '순수 형식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급물살을 탄 다원주의에 힘입어 조각가들은 다양한 관심사를 작품에 녹였다. 또한 현재 조각가들은 장르의 해체를 목도해야 하는 당혹감과 함께 작업의 목적, 방향, 이유를 변별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는 오히려 사적인 영역으로의 선회를 추동했다. 한국 동시대조각가들의 내용적 관심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하나, 조각사의 인용(appropriation). 미술의 전통을 메타적으로 다룬다. 과거의 조형 '틀'을 취하되 그 안에 사적인 이야기를 주입하는 식이다. 둘, 개인의 욕망. 이는 특히 '전지적 스마트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마트 기기로 연결되는 인터넷 세계가 도리어 오프라인 현실을 지배하는 지금, 조각에는 '속도', '유행', '덕질'의 온라인 감각이 녹아 있다. 셋, 사회 문화의 반영. 삶을 뒤흔드는 사건 사고, 예술가의 팍팍한 현실, 이질적인 문화 간 갈등을 구체적인 물질로 현존시켜 저마다의 담론을 제시한다. 이 조각들은 예술가의 '대리자'로서 추상적인 '내러티브'를 물성화한다. 오은, 박인탄, 최하늘, 문이삭은 조각사를 '리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아방가르드로서 야망을 표출한다. 이은우, 돈선필, 차슬아, 허연화, 박보마, 우한나는 SNS,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등 일상과 밀접한 시각 환경을 조각으로 번역한다. 김상돈은 혼란의 시대를 샤머니즘으로 치유하길 권하고, 김영봉, 민성홍은 도시의 부산물을 생태적으로 활용한다. 진기종은 전 지구적인 갈등을 디오라마 형식으로 집약 제시하고, 이의성은 예술 노동의 생산성을 탐구한다. 윤가림, 이지은은 수행적인 조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접합하고, 서해영, 김채린은 관객 참여 조각으로 '소통'을 꾀한다. 다섯 작가로 구성된 믹스앤픽스는 서로의 작업에 개입하고 변형해 '집단 창작의 미학'을 실천한다.





돈선필 디버깅 스테이션

피규어, 나무, 스프레이 페인트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9 / 돈선필은 '피규어 조각'으로
동시대의 서브컬처 감수성을 드러낸다.
피규어에는 캐릭터 디자이너, 제품 생산 업체,
마니아의 욕망이 얽혀 있다. 동시대 현실과
문화를 드러내는 장치. <디버깅 스테이션>은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한 장면을 1/6
스케일로 축조한 피규어에 단색 스프레이를
도포한 작업. 장난감과 조각품, 상품과 창작물의
경계를 넘나든다.

박보마 R as a blackwater vase(왼쪽),
행복했던 바다와 하늘을 다시. 하나씩. 담아.
기억해. : fldjf 공명 패턴 unit #20_1oCt_01
Feat. The ocean waves btw... II(오른쪽)

오른쪽 페이지 위 · 점토, 섬유 스틱, 유리병
외 혼합재료 17×55cm 2019(왼쪽), 아크릴,
유리, 크리스탈, 석고, 세라믹, 스프레이
가변크기 2020(오른쪽) / 박보마는 다종의 작가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설정한다. 특히 웹 사이트
'화이트멘 데코 앤 보마'를 운영하면서 장식적인
조각작업을 선보인다.

우한나 파자마 파티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0 / 우한나는 조각, 공예,
패션의 문법을 뒤섞어 부드러운 '패브릭 조각'
을 제작한다. 유연하고 탄력 있는 패브릭에 스티,
목재, 점토, 기성품 등을 조합해 현실과 환상이
혼재된 환경을 제시한다. <파자마 파티>는 누군가
놓고 간 엉망진창의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최근에는 신체 장기 모양의
패브릭 가방을 만들어 관객이 직접 매고 다니도록
했다. 몸에 걸칠 수 있는 '포터블 오브제'다.